

인 증 신 청 서

탐방 프로그램 해설가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목 표			
운영 장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원구역내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자안내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안내 <input type="checkbox"/> 체험형 <input type="checkbox"/>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연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문화 <input type="checkbox"/> 해안생태 <input type="checkbox"/> 갯벌사구 <input type="checkbox"/> 거점해설 <input type="checkbox"/> 자연체험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체험 <input type="checkbox"/> 자연경관 <input type="checkbox"/> 역사문화경관 <input type="checkbox"/> 해안경관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탐방안내소 <input type="checkbox"/> 혼합()		
운영 대상	<input type="checkbox"/> 초등학생 청소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성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소수자 <input type="checkbox"/> 가족단위 <input type="checkbox"/> 구분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영 시기	<input type="checkbox"/> 봄 <input type="checkbox"/> 여름 <input type="checkbox"/> 가을 <input type="checkbox"/> 겨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없음		
운영 인원	직원 18명 자연환경안내원 7명	소요시간(분)	90분
활동 장소 및 특 성	사무실~백양사		
준 비 물			
제 출 자 료	1. 인증신청서(관련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관련서식-2) 3. 프로그램 시나리오(관련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관련서식-4)		
국립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탐방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해설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자	2008년 11월 24 일	신 청 인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인)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목표	사무소를 방문한 V.I.P 내방객에게 본 사무소 현황 및 현장 해설을 통해 이해력 증진과 을 목표로 한다.		
해설주제	내장산 백양사·남창지구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 소개		
해설재료	소요시간	12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해설장소	소요시간
준비단계	1. 인사말, 국립공원내장산현황소개	인사말, 국립공원내장산 소개	사무소 앞	5'
도입단계	2. 백양사 법계	백양사 법계의 역할	사무소 앞 길	5'
해설단계	3. 일주문	출가와 속세를 구분하는 문	사무실-매표소	4'
	4. 시인마을과 가인마을	시인마을과 가인마을 이야기	시인마을~가인마을 입구	7'
	5. 백양사박물관	백양사정보박물관의보물들	박물관앞	5'
	6. 대한팔경비, 시문	옛 시로 만나보는 백학봉	대한팔경비	10'
	7. 부도군과 당산제	백양사의 부도군과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	부도군~일광정 입구	6'
	8. 일광정과 갈참나무길	휴식을 주는일광정과 갈참나무길	일광정~갈참나무길	6'
	9. 비자나무 모니터링구	천연기념물 비자나무 모니터링구의 역할	비자나무해설판	4'
	10. 곡두재 가는길	곡두재는 자연복원 진행중	곡두재입구	5'
	11. 쌍계루	조상의얼이 묻어있는 쌍계루	쌍계루위	10'
	12.백양사의유래	고불총림백양사의탄생	쌍계루아래	5'
	13.극락교와이뿔고	나를찾고자하는화두	이뿔고비	5'
	14. 사천왕문과 범종각	사천왕문과 범종각의 의미	사천왕문~범종각	15'
	15 백양사 고불매	천연기념물 고불매의 향기를 찾아서	고불매	3'
	16. 경내해설	백양사 경내 주요건물 의 중요성	백양사 경내	20'
마무리 단계	17. 갈무리	소감나누기 / 마음속에 사진 한 장		5'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 공감대형성	인사말 및 국립공원 내장산 소개
인사말, 국립공원 내장산소개	<p>안녕하십니까?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백암사무소 ○○팀에서 근무하는 ○○○입니다.</p> <p>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11월 17일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전남 장성군에 걸쳐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호남정맥이 호남평야의 한가운데 이르러서 형성된 지역으로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배운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으로 흐르는 산줄기입니다.)</p> <p>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과 순창 지역의 내장산은 내장산사무소에서, 전남 장성 지역인 백암산과 입암산은 백암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이 백암산으로 2006년 11월에 사무소 명칭이 기존 남부사무소에서 백암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p> <p>공원관리 면적은 전체 81.715km² 중 34.211km²로 약 42%에 해당됩니다. 그중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가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식물상의 남방 및 북방 한계선으로 비자나무 군락지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면적이 다소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곳은 가을이면 애기단풍이 만산홍엽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 호남 5대 명산(지리산, 천관산, 변산, 월출산, 내장산) 중 하나이며, 조선 8경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p> <p>저희가 관리하는 백양사지역은 연간 탐방객이 50여만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정읍의 내장사지역은 120만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이 탐방객이 가을철 1~2개월(약 80%)에 걸쳐서 다녀가는 사람으로서 이때는 단풍 구경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백양사와 백암산이 있는 백양사지구와 남창계곡과 입암산이 있는 남창지구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백양사지구는 백제 무왕 33년(632년)에 창건한 천년고찰인 백양사와 스님들의 참선하는 도량인 운문암(북쪽 마하연, 남쪽 운문암), 비구니스님의 도량인 천진암 등 10여개 사찰이 있으며, 산봉우리로는 최고봉인 상왕봉(741m)과 사자봉(722m), 백학봉(651m), 가인봉(677m) 등으로 이루어져</p>

	있습니다.
2 / 21	신청인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관련서식-3)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2. 백양사 법계	백양사 법계의 역할
백양사 법계	<p>지금 계시는 사무소 앞을 살펴보면 길 양쪽으로 2기의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네! 250센티 높이의 이 사각석비는 여기서부터 백양사라는 영역을 나타내는 경계표시 역할을 하는 법계입니다. 사무실 건너편 서쪽 석주에는</p> <p>“백양법계 갑자옥불일입석, 암단천차로, 강하공주이불류”</p> <p>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사무실 쪽 동쪽 석주에는</p> <p>“호남경승 불기이구오일년, 시풍언악이상정, 서광조만기”</p> <p>란 음각이 새겨져 명문으로 보아 1924년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p> <p>마을입구에 들어서면 장승이 세워져 마을의 입구임을 알리는 것처럼 백양사 법계의 위치로 보아 이곳에서부터 백양사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p> <p>그럼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p>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 공감대형성	<p>인사말 및 국립공원 내장산 소개</p> <p>백양사 후면에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국기단이 있으며, 지금도 장성백양 단풍축제 때 장성군수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백암산의 주요 탐방코스로는 백양사~약사암(영천굴)~학바위~백학봉~상왕봉~사자봉~가인마을~주차장까지 오는 산행이 종주 탐방로이며 거리는 약 8.5Km,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p> <p>또 하나의 탐방코스는 백양사에서 백양계곡을 따라 운문암입구~능선사거리~몽계폭포~전남대수련원에 이르는 탐방로로 약 6.2Km,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p> <p>이 곳이 남창지구입니다. 입암산성 남쪽에는 군량미 창고가 있었다 하여 남창이라 불리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자하동계곡, 내인골, 은선동계곡, 산성계곡, 새재계곡, 하곡동계곡 등 6개 계곡과 크고 작은 많은 폭포가 형성되어 있어 여름철에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8만명 정도)</p> <p>입암산의 주요 탐방코스로는 전남대수련원~새재갈림길~입암산성갈림길~남문~성내리~북문~갓바위~은선동계곡~전남대수련원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탐방로로 거리는 약 10.1Km,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이 코스는 여름철에 햇빛을 피하고 계곡을 따라 삼나무 수림의 산림욕을 할 수 있으며, 완만하게 산행하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노약자분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p> <p>이곳 갈림길에서 입암산성의 남문을 지나면 옛 성내마을 터가 남아있으며,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과 임진왜란때 왜군과 대항하여 전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윤진장군 순의비도 볼 수 있습니다.</p> <p>갓바위는 멀리서 보면 바위가 마치 갓(草笠)을 쓰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아마 입암산이 이 바위 때문에 붙여진 산이며, 비온 후 바람 불고 맑은 날 이 곳에 오르면 북쪽으로 전북 정읍 입암면과 두승산, 호남평야가 보이며, 서쪽 아랫방향에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국도 제1호선이 보이고 그 위로 가까이 방장산, 고창 선운사, 곰소항, 멀리 변산반도국립공원까지 보입니다.</p> <p>남쪽으로 담양의 병풍산, 광주의 무등산 등이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p>

인사말,
국립공원
내장산소개

	다.
3 / 21	신청인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3. 일주문	출가와 속세를 구분하는 문
	<p>매표소 앞을 지나 두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문은 일주문이라 합니다. 출가와 속세를 구분하는 경계로 진리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뜻을 지닌 일주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p> <p>일주문에는 대문이 없는 이유가 이런 상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p> <p>우리도 지금 일주문을 지나면서 속세의 찌든 때를 벗고 일심의 마음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4. 시인마을과 가인마을	<p>시인마을과 가인마을 이야기</p> <p>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백양사지구 ‘시인마을,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시인마을, 탐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여 탐방객과 더욱 가까이에서 탐방 안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p> <p>현재는 시집 대여, 탐방객 쉼터 제공, 주요탐방로 안내, 유모차, 휠체어 대여, 소화물보관, 사진인화 등 무료탐방안내와 국립공원 캐릭터 기념품 판매 등으로 국립공원을 찾아와 주신 탐방객들에게 더욱 만족을 주는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며, 탐방지원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p> <p>시인마을을 지나 왼쪽으로 가는 길은 가인마을입니다. 가인마을은 백양골에 있었던 여러 마을 중의 하나였으며 국립공원개발에 따라 여러 주민들이 이주하여 집터흔적만 남아있으나 가인마을은 국립공원내 깊은곳에 자리 잡은 마을로 많은 탐방객들의 이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p> <p>가인마을에는 38여 호의 가구가 살고 있으며 1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은 민박업, 고로쇠 채취와 한봉, 그리고 장성의 특산품인 감과 곶감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p> <p>가인마을이 위치한 골짜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며 바람을 잘 막아주어 추운겨울에 주민들이 출타 하였다가도 가인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바람이 잠잠하여 온아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 집터를 고르는 옛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백양사박물관	백양사 정보박물관의 보물들
	<p>이곳은 백양사에서 관리하는 백양사 정보박물관입니다. 30억의 건축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박물관은 백양사의 가풍을 이룬 송만암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흔적들과 백양사의 방장스님으로서 2003년 좌탈입망하신 서옹스님의 유품들이 보관 되어있으며 백양사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보관하여 전시하는 곳입니다.</p> <p>백양사박물관에는 문화재 도굴꾼들에 의해 분실 당했던 영산회상도 탕화를 어렵게 되찾은 과정 중에 더욱 알려져 탐방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탕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백양사 부도 중 유일하게 문화재 보물 제1346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요당 부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p> <p>소요당 부도는 이곳 이외에도 담양 추월산 용추사와 지리산 연곡사에도 있으며 소요당 계서 1649년에 용추사에서 입적하셨기 때문에 건립연도는 16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p> <p>백양사 박물관에 들어오면 전시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풍겨 나오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져 자연스럽게 경건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p> <p>불교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우리문화를 정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	---------

6.대한팔경,시문	<p>옛 시로 만나보는 백학봉</p> <p>백양사 박물관 외부 백학봉이 보이는곳에 세워진 석비는 백양사 사찰에서 세운 비로 대한팔경 중 한곳임을 소개하는 석비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문처럼 여러 묵객들이 방문하여 감탄하던 곳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p> <p>이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학봉 일대는 겨울에 하얗게 내린 설경의 모습이 일품으로 모악춘경, 변산하경, 내장추경과 더불어 호남의 4경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백학봉은 '1월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되어 눈 내린 1월이면 많은 사진작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p> <p>대한팔경 백양사 석비아래에 세워진 해설관의 시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지은 시인데 모두 크게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황매화</p> <p style="text-align: center;">백암산 황매화야 보논이 없어 저혼자 피고진들 어떠하리만 백학봉 기묘한경 보지않고서 조화의 숨씨일랑 아는체말라</p> <p>이시 한편으로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느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육당 최남선선생이 전국을 돌며 지은 심춘순례지에서 앞에 보이는 백학봉의 모습을 맑은 맛, 날카로운 맛, 신령스러운 맛, 흰 맛 이렇게 4가지 맛으로 표현하여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2008년에 문화재청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백학봉은 명승 제38호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입니다.</p> <p>이곳에서 우람한 백학봉의 풍경과 그 기운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사진촬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p>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7.부도군과 당산제	백양사의 부도군과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
	<p>오른쪽으로 보시는 곳이 백양사 부도군입니다. 쌍계루 앞에 있던 부도군을 2007년도에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곳을 탑이라고 부르며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한 곳을 부도군 이라고 합니다.</p> <p>현재 이곳에는 만암당 부도, 무가당 부도, 모운당 부도 등 여러 스님들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는 소요당 부도도 함께 있었는데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기 때문에 백양사 성보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p> <p>오른쪽에 보시면 오래된 느티나무가 보이는데 일명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르고 또는 바깥당산나무 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매년 정월 초나흘 에 마을 주민들과 백양사가 공동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당산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재를 지내면서 이곳은 신성한곳이니 나쁜 일들과 병과 어려움 들은 물러가서 오지 말라고 기원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서 쌍계루 앞에서 보시게 될 할머니 나무(안당산나무)까지 가면서 재를 지내고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8. 일광정과 갈참나무길	<p>휴식을 주는 일광정과 갈참나무길</p> <p>이곳은 일광정입니다. 저희가 백양골 자연해설을 시작할 때 보통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 아름드리 줄지어 서있는 갈참나무들과 함께 서민들의 휴식을 함께 보살피 주었습니다.</p> <p>여기 보이시는 구름다리와 일광정은 2006년에 드라마 '황진이'의 촬영지로서 초겨울의 갈참나무 잎들이 쌓여있는 곳에서 황진이를 유혹하던 벽계수가 황진이의 가야금소리에 말을 타고 오는 장면을 촬영하던 곳으로 갈참나무 낙엽길만 보고도 일광정에서 촬영한 풍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광정 주위에 온통 갈참나무 잎들이 떨어져 낙엽위를 걷는 신선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p> <p>길가에 아름드리 갈참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이곳을 갈참나무길이라고 부르며, 봄이면 갈참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는 모습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기 위하여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중의 한 곳입니다.</p> <p>갈참나무들은 평균 수령이 500~700년 정도 되었으며 만약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오래된 갈참나무가 한그루만 있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림이 어려웠던 옛날에 가장 좋은 숲을 만들어 식량과 바꿀 수 있었던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갈참나무 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천년사찰 백양사 앞에 있는 나무를 자르면 집안에 우환이 돈다는 믿음 때문에 이처럼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p> <p>수령이 오래된 갈참나무들의 수피를 살펴보면 나무병원에서 정성껏 치료한 외과수술 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p> <p>갈참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갈참나무 주변 목책과 비료공급과 답압방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9. 비자나무 모니터링	<p>천연기념물 비자나무 모니터링구의 역할</p> <p>현재 오른쪽으로 보고 계시는 나무가 비자나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백양사지구에 자생하는 비자나무 모니터링 결과 8천그루의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비자나무 군락지는 국립공원 내장산의 천연기념물 제153 호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 보호 되고 있습니다.</p> <p>조선시대 때 송유억불 정책으로 사찰이 어려웠을때 백양사 스님들이 생계 대책으로 비자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특산물로 구충제 역할을 하는 열매로 애용하였습니다.</p> <p>비자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인 이곳 백양사 지구의 비자나무 군락지는 식물 분포학적 가치가 있으므로 비자나무 주위로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구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구간 내에 어떠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개체 수의 파악 등을 꾸준히 연구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0. 곡두재가는길	곡두재는 자연복원 진행중
	<p>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곡두재입니다. 이 길은 1800년대 지방지도에 보면 곡두치 라고 명칭 되어 있습니다.</p> <p>이곳 곡두재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길이었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 이후에 차량을 통제하고 자연관찰 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p> <p>차량 통제 이후, 풀이 전혀 자라지 않고 시멘트처럼 단단해진 길가로 모니터링 구간을 정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은 점점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곡두재를 더욱 애정어린 사랑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곡두재는 복원되어가는 자연을 볼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비자나무 향기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목재 데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천진암을 지나 아름다운 차밭도 볼 수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1.쌍계루	조상의 얼이 묻어있는 쌍계루
	<p>여기 보이는 연못가에 세워진 누각은 쌍계루입니다. 쌍계루는 대략 1350년에 각진국사에 의해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당시의 쌍계루 이름은 단순히 교루라는 이름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각진국사는 백양사를 3번째로 중창한 스님으로 그분은 고성이씨 가문의 한사람으로 백양사는 지방의 유지인 고성이씨가 꾸려오던 사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암사 쌍계루기에 청수 스님이 지은 누각인데 큰 홍수로 무너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청수 스님은 각진국사의 조카이며 많은 여러 고서의 기록중 백양사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것보다 쌍계루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쌍계루에 대한 유래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p> <p>백양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 쌍계루는 백양사내에서 옛 선비들이 시와 풍류를 논하던 곳으로 서민들이 일광정 정자에서 밭일을 하고난후 휴식을 취했다면 양반들은 쌍계루에서 풍악을 울리며 시와 교류를 즐기던 곳입니다.</p> <p>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이름이 교류였다고 했는데요, 사찰의 가람배치와 홍수로 인해 무너졌다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쪽으로 보이는(곡두재 입구쪽) 곡두재 입구에서 사천왕문이 있는 곳까지 다리위에 세워진 누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곡두재는 고지도 상에서도 나와있을 정도로 오래된 재였고 그 입구가 사천왕문과 거의 일직선상에 있으니 추론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1.쌍계루	<p>조상의 얼이 묻어있는 쌍계루</p> <p>백양사 바로앞에 선비들이 시문을 짓고 교류의 장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며 이색적으로 종교와 문화가 함께한 뜻깊은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 이색 등이 기문을 지은 현판이 걸려 있으며 이색의 '쌍계루기'에서 보면 “쌍계루의 좌우로 물이 흘러들어와 하나로 합쳐 흐르는 것을 보고 쌍계루라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였으며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가 시를 지었고 뒤에 많은 학자와 묵객들이 쌍계루의 경치를 감탄하며 시서를 남겼습니다. 여러 현판중에서 맨중앙에 있는 정몽주선생이 쓰신 현판을 풀이 해보면</p> <p>“지금 시를 써달라 청하는 백암승을 만나니 /붓을 잡고 침음하면서 재주 없음을 부끄럽구나, /청수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이를 중후하고/목은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그가치가 도리어 더했도다/ 푸른안개는 아른거려 저문산에 물들었고/ 밝은빛은 배회하며 가을 문이 청청하네/ 오랫동안 인간세상에 뜨겁게 번뇌해 왔으니/ 어느날 옷을 떨치고 자네와 함께 올라볼까”</p> <p>어떻습니까? 정몽주 선생님을 직접 마주한 기분이 드십니까? 역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는 말이 정몽주선생이 남긴 쌍계루에서 지은 시한편으로도 실감되지요?</p> <p>쌍계루라고 정면에 쓰여진 현판외에 이곳에는 총 3개의 쌍계루 현판이 있습니다. 이 현판은 전주의 호남제일문 현판을 쓴 강암 송성용 선생의 글씨입니다. 쌍계루 현판을 보니 강암 송성용 선생님의 힘차고 넉넉한 힘이 느껴지지요? 쌍계루와 만나는 시간은 문화 역사속으로 흠뻑 빠져보는 그 시간속으로의 여행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2.백양사의 유래	<p>고불총림 백양사의 탄생</p> <p>백양사는 백제 무왕때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명찰로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고, 정토사로 불려지다가 백양사로 이름이 세 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선 선조 때 환양선사가 영천암 에서 금강경을 설법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와 설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법회가 3일째 되던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되는 법회가 끝난 날 밤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절을 하였다 합니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으며 그 이후 절 이름을 흰 백(白)과 양 양(羊)자를 써서 백양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p> <p>고불총림 백암산 백양사는 총림이 되기 위한 사찰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져 있으며,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지칭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강원은 대학교, 선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율원은 박사과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 이렇게 5대 총림이 있는데 백양사는 총림 중 가장 마지막으로 1996년 3월 총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3.극락교와 이뿏고	<p>나를 찾고자하는 화두</p> <p>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로 사찰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평범한 다리가 아닌 극락교, 또는 피안교 라고 합니다. 이곳 백양사도 역시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이름은 극락교 라고 하고 극락이란 다른 말로 피안이라고 합니다.</p> <p>피안이란 속세를 떠난 세계, 속세와 다른 세계를 뜻하는데 속세를 떠나서 보살의 세계로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극락교를 건너 ‘이뿏고’라고 화두가 적혀 있는 비가 있는데 “이 뿏고”라는 화두의 의미는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즉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의문입니다.</p> <p>반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심해가면 궁극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의심마저 사라지고 자신의 본체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p> <p>조금 전 우리는 극락교를 건너서 보살의 세계로 들어와 이뿏고 화두를 깨우치며 지금은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4.사천왕문과 범종각	<p>사천왕문과 범종각의 의미</p> <p>이 사천왕문 건물은 1945년 복원했는데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 사천왕을 모신 건물입니다. 수미산 중턱에서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지키면서 희노애락을 나타내며, 불법 수호와 인간 선악을 관찰하는 임무를 사천왕들이 하고 있습니다.</p> <p>보고 게시는 사천왕문은 1919년 대웅전이 조성 되었을 때 같이 세워졌으며, 구례 화엄사,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문과 함께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p> <p>사천왕문을 지나면 불전사물이 보관되어 있는 범종각이 보입니다. 범종각은 주 법당에서 불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전사물은 각기 있는 곳이 있으나 이곳처럼 큰 절에서는 이렇게 한곳에 모아놓기도 합니다.</p> <p>사물의 울림은 곧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기원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자비의 소리로 절에서는 아침예불과 점심, 저녁예불 때 사물을 칩니다.</p> <p>그리고 범종각 안에 함께 보관되어 있는 커다란 구시는 광대싸리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야외에서 법회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밥을 담은 용기로 사용하여 얼마나 큰 법회가 이루어졌는지 구시의 크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커다란 구시를 만들 수 있는 광대싸리 나무도 요즘은 보기 드문 자연자료로서 범종각 안에 북, 석종, 목어, 운판과 구시가 함께 진열되어 있는 이유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문화와 자연 자원까지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p> <p>여기 보이는 나무에 보리수나무라고 적혀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상징적인 장소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5.백양사고불매	천연기념물 고불매의 향기를 찾아서
	<p>우화루 옆에 한눈으로도 무척 오래된 세월을 담고 있는 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이 나무는 이른 봄, 고고한 선비의 향기같은 꽃을 피우는 홍매화로 천연기념물 486호로 지정되어 호남 3매 중 하나로 손꼽는 나무입니다.</p> <p>1700년경에 심어져 담홍색 꽃이 피어나며 매화의 기품과 고목의 품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청정하고 모범적인 고불총림의 기상과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어 고불매라고 불리웁니다.</p> <p>겨울을 지낸 선비의 깨끗한 정신같은 향을 뿜어내는 고불매의 꽃향기를 만나시려면 3월의 백양사지구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6.경내해설	백양사 경내 주요건물의 중요성
	<p>지금 보시는 웅장한 건물이 백학봉과 어우러져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백양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1919년 만암선사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p> <p>대웅전은 다 아시겠지만 큰 영웅 즉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건물입니다. 보통 대웅전의 경우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로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 대웅전은 특이하게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관음보살을 둔 이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p> <p>지붕의 맨 위 가운데에 보시면 청기와 하나가 보이시죠? 저 청기와를 올린 것은 이 백양사 대웅전의 규모를 말해주며 화마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p> <p>다음으로 대웅전 뒤로 돌아가보겠습니다.</p> <p>지금 보시는 탑이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백양사 8층 석탑입니다. 탑은 보통 홀수 층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나 이 탑은 짝수인 8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8정도(정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를 상징하기 위해서 8층으로 만든 탑입니다. 본래 석탑은 대웅전 및 금당 앞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이 탑은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아마도 석가모니 탑이 불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6.경내해설	<p>백양사 경내 주요건물의 중요성</p> <p>다음으로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무척 귀품 있어 보이는 대웅전 오른편으로 보이는 건물이 극락보전입니다.</p> <p>극락보전이라는 말이 ‘극락정토’를 상징하며 앞서 백양사의 역사에서 보듯이 정토사 혹은 정토정사를 표방한 경우가 많아 아마도 이 극락보전이 백양사의 주 금당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찰의 가람배치로 볼 때 사천왕문과 일직선상에 있으며 또한 앞서 설명한 범종각이 이곳 극락보전에서 볼 때 오른편에 위치해 있어서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p> <p>조선사찰사료에 따르면 백양사 극락전불 양계서의 ‘문정왕후빈향축열서(文定王后賓香祝列書)’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건물을 짓는 데 종종 왕비되는 문정왕후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은 역대 백양사의 조사 및 업적이 높은 고승의 진영을 모셔놓은 진영각과 민간신앙인 칠성신앙을 모셔놓은 칠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십왕을 모셔놓은 곳이며,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명부전 지하에 납골당인 영각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등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시는 것들에 의미가 있듯이 이 석등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팔각으로 되어있는 기둥은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8정도를 의미하며 불빛이 나오는 4각은 사성제(고·집·멸·도)의 법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중생계를 비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으로는 주위를 밝히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중생계를 비춘다는 뜻도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V.I.P 내방객을 위한 내장산백암 탐방가이드
-------	---------------------------

해설 주제	세부 시나리오
17.마무리	<p>소감나누기 / 마음속에 사진 한 장</p> <p>사무실에서 백양사까지 많은 시간동안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오신분들도 국기제가 열리는 백학봉의 웅만한 기를 담아가기 위하여 백학봉을 배경으로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잠시 우화루에 올라 지금까지 보신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차 한잔 마시는 여유를 가져봐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p>